

중국, 식품오염 처벌 대폭 강화

클렌뷰테롤 생산자 사형선고 받아 ... 멜라민 유아식 사건이후

중국이 식품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는 첨가제인 클렌뷰테롤(Clenbuterol, 천식 치료제)을 생산해 온 류쑹이 최근 사형선고를 받았고, 수십명의 공무원들도 허난성(河南省)에서 오염된 돼지고기를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1월28일 보도했다.

중국은 2008년 멜라민(Melamine)에 오염된 유아용 유동식을 섭취한 후 최소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30만명이 관련질병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 독성 생선, 오염된 콩나물이 쓰이고 붉은 색소로 염색된 마파두부(Sichuan peppercorns)가 적발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육류 취급기업인 중국 쌍후이(雙匯)그룹 계열사는 클렌뷰테롤을 주사한 돼지고기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식품 가공기업인 위룬(雨潤)그룹도 9월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돼지고기에서 불법 첨가제가 검출됐다.

중국 정부는 2011년 3월 클렌뷰테롤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28>